

《水滸葉子》의 인물 敍事

— 水滸 서사 속 盧俊義·燕靑 형상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文 丁 昉*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天罡星 盧俊義
 - 2.1 理想, 영원의 소실
 - 2.2 現實, 경전 밖 세상
 - 2.3 破局, 가치와 이념
3. 天罡星 燕靑
 - 3.1 機智, 공감과 소통
 - 3.2 媒介, 시대 속 영웅
 - 3.3 忠孝, 관계와 믿음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梁山泊 好漢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水滸 서사는 宋代의 講唱故事에서부터 희곡, 소설, 그리고 오늘날의 매체를 활용한 영화와 게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오고 있다. 수호 서사의 전파가 확대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明代 폭발적으로 증가한 插畫本 《水滸傳》의 출판 및 유통이다.¹⁾ 다양한 유형의 《水滸傳》 삽화들은 새로운 비평의 형식을 제시하며 일정한 계보를 형성해 나갔

www.kci.go.kr

* 聖潔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助敎授

1) 徐小蠻·王福康 著, 《中國古代插圖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121-127쪽.

다.2) 陳洪綬의 木刻本 《水滸葉子》 역시 英雄 서사 시대의 서막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 《水滸傳》³⁾을 근간으로 한다.

인체의 모습을 과장하고 변형을 시도한 陳洪綬의 인물화는 중국 미술사에 풍성한 정취를 더하며 발전을 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⁴⁾ 《水滸傳》의 108명 好漢 가운데 40명만을 선택해 그린 《水滸葉子》 속 인물들⁵⁾ 또한 “아무렇게나 그렸어도 보는 이의 눈을 놀라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없다.” 한 명 한명의 “뺨에서는 바람이 일어나고, 미간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다.⁶⁾ 《水滸葉子》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그림(圖)과 글(文)은 《水滸傳》 속 호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형상을 탄생시켰다.⁷⁾ 그리고 葉子 속 40인을 관통하는 또 다른 서사를 구축한다. 이는 《水滸傳》과 《水滸葉子》의 동일 인물 사이에 발생한 순위 조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⁸⁾

“忠은 윗사람을 섬기는 좋은 법도이며 義는 아랫사람을 부리는 규범이다.”⁹⁾ 본고는 “忠義의 기운으로 충만”¹⁰⁾한 《水滸葉子》의 영웅들 가운데 다른 인물

2) 이에 관한 내용은 서성·강현실의 <《水滸傳》 插畫의 유형과 계보 연구>(《中國學論叢》 第35輯,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2012.2)와 <경쟁하는 삽화와 비평의 형식 -《水滸傳》 대척적인 서문본의 용어당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中國語文論叢》 第64輯, 中國語文硏究會, 2014.8)를 참고한다.

3) 羅德榮, <“英雄傳奇”의 開山之作>(沈伯俊編, 《水滸研究論文集》, 中華書局, 1994, 620~627쪽).

4) 李霖燦, 장인용 옮김, 《중국미술사》, 서울: 다빈치, 2017, 487쪽.

5) 본고에서는 당시의 梁山泊 好漢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참고하기 위하여 《匯評忠義水滸傳》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으며, 기본 번역은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조의 《수호지》 1~4권(시내암 저, 서울: 울재, 2014, 이하 생략)을 인용하였다.

6) 汪念祖, <章侯水滸葉子引>: “陳章侯復以畫水畫火妙手, 圖寫貫中所演四十人葉子上, 頰上生風, 眉尖出火, 一毫一發, 憑意撰造, 無不令觀者爲之駭目損心.” <諸家評論輯要>, 盧輔聖主編, 《陳洪綬研究》,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08, 290쪽.

7) 본고의 《水滸葉子》는 “中國水滸(中國水滸文化傳播中心)”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http://sddp.net/sh/china/shys/shyz/index.htm>)

8) 문정진·오경희, <《水滸葉子》의 인물 서사 試探>, 《中國語文論叢》 第72輯, 中國語文硏究會, 2015.12, 242쪽.

9) 金聖嘆, 《忠義水滸傳·金批本·序二》: “忠者, 事上之盛節也, 義者使下之大經也.”, 《匯評忠義水滸傳·序·小引》.

10) 張岱, 《陶庵夢憶·第六卷·水滸牌》: “以英雄忠義之氣鬱鬱芊芊積於筆墨間也”,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366쪽.

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존 水滸 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盧俊義와 燕靑 두 인물을 집중 분석한다. 다양한 사건들로 드러나는 盧俊義와 燕靑의 대비는 《水滸葉子》 속 圖와 文에 내재된 시대적 가치의 전환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2. 天罡星 盧俊義

2.1 理想, 영원의 소실

《水滸葉子》에 그려진 盧俊義의 “형형한 두 눈, 치켜 오른 팔자 눈썹”은 소설 텍스트 속 묘사 그대로이다. 盧俊義의 늠름한 위풍과 천신과도 같은 의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용처럼 몸을 놀리며 몽치 다루기에 능한 盧俊義의 무예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다. 봉술, 창, 활 등 다룰 줄 아는 무기 또한 많았다.¹¹⁾

청백하여 북경성에 소문난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집 출신, 싸움터에 나서면 만군(萬軍)을 무찌르고 천군(千軍)을 물리치네. 충성은 일월같이 빛나고 호협한 뜻 하늘에 치솟누나. 강개한 인품, 의리 지켜 재물 아끼지 않으니 그 명성 세상에 퍼졌네. 노 원외의 이름은 준의요, 별호는 옥기린이라.¹²⁾



그림1. 天罡星 玉麒麟
【盧俊義】“積粟千斛 盜糧 積錢千萬 無私囊”

중국의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은 사슴처럼 크고 소꼬리에 말발굽을 지녔으며 뿔은 하나다. 등에는 오색의 털이 있고 온 몸은 麟甲으로 둘러싸여 있다. 길상

11) 《수호지》 2, 제60회, 581~582쪽.

12) 《수호지》 3, 제61회, 24쪽.

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기린 형상의 옥 장식품으로 盧俊義의 작호를 삼은 것은 그가 지닌 고귀함을 의미한다.¹³⁾

양산박 108 호한 가운데 《水滸傳》 제60회에서야 그 이름이 거론된 盧俊義의 등장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소설 속 盧俊義의 양산박 입산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宋江의 의지와 吳用의 계략이 더해진 결과였다.

오용은 천천히 두 손가락을 겹쳐 펴들며 그 계책을 말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 노준의는 금의옥식(錦衣玉食)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용담호혈(龍膽虎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 한 사람이 수호에 들어온 것으로 하여 백성들은 전란을 겪게 되었다.¹⁴⁾

《水滸傳》의 盧俊義 관련 서사는 길흉을 점치는 도사로 분장한 吳用의 계책에 달려 든 盧俊義가 양산박에 들어가기까지의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다. 총 6회에 걸친 긴 입산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과 달리, 元 雜劇 <梁山七虎鬧銅臺>에 등장하는 盧俊義 이야기는 부패한 관리의 정치, 부인 가씨와 李固의 부정한 관계, 盧俊義의 억울한 옥살이에 초점을 맞춘다. 元 雜劇 속 水滸戲에서 “무예가 평범하고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며 가업과 생명을 중시하는 보통의 인물” 盧俊義는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을 다해낸다. 운명을 점치는 吳用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뚜렷하지 못한 宋江보다 더욱 돋보인다.¹⁵⁾

宋江, 盧俊義, 吳用은 《水滸傳》에서 각각 1, 2, 3위의 서열에 위치하며 하늘이 내린 星座를 부여받았다. 盧俊義는 36천강 가운데 天罡星, 즉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杓)을 가리킨다.¹⁶⁾ 天魁星 宋江의 ‘魁’는 우두머리라는 의미와 함께 북두칠성의 일곱 개 별 중 사각형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네 개의 별을 통칭

13) 曲家源, <《水滸》一百單八將綽號考釋> (沈伯俊編, 上揭書, 514쪽).

14) 《수호지》 2, 제60회, 582쪽.

15) 水滸戲 속 盧俊義·吳用·宋江에 대한 내용은 <梁山七虎鬧銅臺>를 분석한 申智瑛의 <元 雜劇 水滸戲와 小說 《水滸傳》 비교 연구> (《中國文學》 第30輯, 韓國中國語文學會, 1998.10, 370~371쪽)을 참고한다.

16) “天罡”, 《漢語大詞典》 2,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1429쪽.



그림2. 北斗七星(출처: 百度百科)

한다. 吳用의 智多星은 인간의 명운이 하늘의 별자리와 관계되어 있다고 여기던 시절, 점성술이 지혜의 원천이었기에 부여된 명칭이다.

중국에서 점성술은 公的인 의미가 강했다.¹⁷⁾ 특히 우주의 근간이자 세계질서의 총체가 담겨 있다고 여겨진 북두칠성은 비단

점성술만이 아닌 儒佛道 3교 모두에서 중요시되었다. 북두칠성이 七政을 바로 잡는 별이라고 여긴 司馬遷은 사회 활동이자 관념이기도 했던 중국 고대의 천문학을 이용해 하늘과 인간이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하나의 체제로 구축했다.¹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운명론은 하늘의 도(天道)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¹⁹⁾ 盧俊義의 양산박 입산을 바라는 宋江의 뜻을 이루기 위해 吳用이 마련한 계획은 바로 盧俊義가 신뢰한 운명론의 허위성에 근거한다.

사시사철 밤하늘에서 길을 인도하던 북두칠성이 지닌 영원성은 天罡星 盧俊義가 吳用의 지략에 넘어간 순간, 사라진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術數, 즉 수많은 ‘예언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던 점성술의 관심 영역은 이제 더 이상 군주와 국가의 운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²⁰⁾ 수호 서사는 북극성을 향해 끊임없이 순환하는 북두칠성과 같은 상징적 통치자²¹⁾보다, 소통하는 현재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와 직면해 있었다.²²⁾

17) 야부우치 기요시 지음, 전상운 옮김, 《중국의 과학문명》, 서울: 민음사, 1997, 55쪽.
 18)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사기·서》, 서울: 민음사, 2011, 159~163쪽.
 19) 이택용, 《중국 고대의 운명론: 삶의 우연성에 대한 대응》,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4, 5쪽.
 20) 조셉 니담 지, 콜린 로닌 축약, 김영식·김제란 옮김, 《中國의 科學과 文明: 사상적 배경》, 서울: 까치글방, 1998, 245~274쪽.
 21) “北斗”, 《漢語大詞典》 2,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192쪽.
 22) 吳小如, <論水滸人物盧俊義>, 《水滸研究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4, 486-508쪽.

2.2 現實, 경전 밖 세상

晁蓋가 죽고 양산박의 수령이 된 宋江이 시행한 첫 번째 조치는 ‘聚義堂’을 ‘忠義堂’으로 바꾼 것이다. 산꼭대기에는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는 깃발을 세웠다. 義를 중심으로 모인 양산박 호한들에게 忠은 새롭게 더해진 가치였다. ‘聚義’의 ‘義’가 일정 조직의 협소한 윤리에 불과한 것이라면 忠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 윤리였다. 글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양산박에 존재하게 하는 원칙이 둘로 나뉜 것이다.²³⁾ 盧俊義는 양산박에 더해진 忠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상징적 인물이었다. 충의당 앞 높게 걸린 붉은 기 두 폭 가운데 쓰인 글귀 하나가 ‘산동 호보의’, 또 다른 하나가 ‘하북 옥기린’인 근거이기도 하다.²⁴⁾

나서부터 글공부 마음에 없어
양산박에 몸 붙이고 세월을 보내네.
활시위에 살 먹여 범을 잡고
미끼를 장만하여 고기를 낚네.²⁵⁾

사나운 호랑이를 잡고 고기를 낚는데 필요한 것은 글공부에서 얻는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활시위와 미끼를 장만하는 경험적 행동이다. 이는 양산박 호한들이 함께 모여 세월을 보내는 이유이다. 盧俊義에게 양산박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청하는 宋江과의 대화에서 당시 통치자에게 요구되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하면 원외보다 세 가지가 못한즉 첫째로 저는 얼굴이 검고 키가 작아 몸골이 초췌한 데다 채주까지 없는데 원외께서는 외모가 당당하고 체구가 늙름하여 귀인상을 지녔습니다. 둘째로 저는 하잘것

23) 류짜이푸 지음, 임태홍·한순자 옮김, 《쌍전: 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 파주: 글항아리, 2012, 249쪽.

24) 《수호지》 3, 제71회, 189쪽.

25) 《수호지》 3, 제61회, 38쪽.

없는 아전으로 있다가 죄를 짓고 도망하여 다니던 중 여러 형제들이 버리지 않고 잠시 이 자리에 앉혔던 것이나 원외께서는 부귀한 가문에 태어나 오랫동안 호걸이란 영예를 지녀 왔고 경난은 좀 겪었다 해도 번마다 하느님의 보우를 받아 왔습니다. 셋째로 저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학문이 없는 데다 사람들을 감복시킬 만한 무예도 없고 닭의 목을 비틀 힘조차 없으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원외께서는 만인을 당할 힘이 있고 고금지사(古今之事)를 널리 정통하셔서 천하 사람치고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형께서는 이런 덕성과 재질이 있으시니 응당 산체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후일 조정에 귀순하여 공훈을 세우고 고관대작이 되시면 이는 다 우리 형제들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걱정된 것이니 더는 사양하지 마십시오.²⁶⁾

《水滸傳》에서 盧俊義는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 출신에 무예까지 출중하며 성품 또한 강직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다. 宋江이 양산박으로 데리고 올 뜻을 품고, 吳用이 스스로 점성술의 허위성을 드러내면서까지 계락을 세우며, 양산박 호한들의 무리한 싸움을 이끌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러나 晁蓋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盧俊義의 사양과 나머지 호한들의 추대 및 동평부에서 거둔 승리가 더해져 결국 양산박의 주인 자리는 宋江에게 돌아갔다. 경전 밖 현실은 더 이상 당당한 외모와 귀한 인상, 부귀한 가문의 영예, 탄복할 만큼 출중한 무예, 경전에서의 정통함을 요구하지 않는 세계였다.

2.3 破局, 가치와 이념

북경의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 자제 盧俊義는 기존의 전통 질서를 따르는 “正人君子”였다. “부호의 가문에서 자랐고 조상들 가운데도 법을 어긴 남자가 없고, 친족들 가운데 再嫁한 여인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매사에 조심하여 이치에 어긋남 없었고 불의의 재물도 얻은 일이 없는”²⁷⁾ 盧俊義는 자신의 앞날에 닥칠 위기를 “양산박의 줌도둑 몇 놈”을 잡아 “대장부의 이름을 떨쳐 볼” 기회

26) 《수호지》 3, 제68회, 152쪽.

27) 《수호지》 3, 제61회, 25쪽.

정도로 여겼다. 그래서 吳用의 꾀에 넘어간 盧俊義는 “점쟁이들의 허튼 소리”라는 李固의 간언도, “점쟁이로 꾸며 가지고 와서 주인어른을 속이는 양산박의 도적”일지도 모른다는 燕靑의 직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큰 가업을 지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가만히 집에 있기를 청하는 아내의 말은 盧俊義에게 그저 아무 것도 모르는 아녀자의 참견일 뿐이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팔자에 정해진 일”이라 여긴 盧俊義의 신념은 陰陽家의 거짓만을 의지하게 한다.²⁸⁾

노화(蘆花) 속의 외로운 배에 몸 신고
 준걸(俊傑)은 잠시 예서 노닌다네.
 의사(義士) 혹시 이 이치 깨달아
 반성(反省)하고 난 피하면 근심 없으리.²⁹⁾

위의 시 “네 구는 구마다 일정한 뜻을 가진 글자가 하나씩 들어 있어서 ‘노화 속 외로운 배에 몸 신고’에는 ‘노(蘆)’ 자가 들어 있고 ‘준걸 어찌 이런 데서 노 니랴’에는 ‘준(俊)’ 자가 들어 있고 ‘의사는 석 자 보검 들었나니’에는 ‘의(義)’ 자가 들어 있고 ‘반역할 땐 간신의 목 베리랴’에는 ‘반(反)’ 자가 들어 있는데 이 네 자를 이어 놓으면 ‘盧俊義는 반역한다’는 뜻이다.”³⁰⁾

무예를 배워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사내대장부라고 여기던 盧俊義의 기개는 “위세”에 불과했다. “배워둔 무예도 천하에 소문낼” 겸 일부러 들어간 양산박의 도적들 앞에서 盧俊義는 “앞뒤로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며 “갈팡 질팡 도망”칠 뿐이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아 생긴 변임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³¹⁾

양산박에 모인 호한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도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俊義는 “차라리 죽을지라도” 항복할 마음이 없다. 전통 가치 및 제도에 대한 盧俊義의 확신은 양산박에서 집으로 돌아 온 자신에게 불어 닥칠

28) 《수호지》 3, 제61회, 29~30쪽.

29) 《수호지》 3, 제61회, 26쪽.

30) 《수호지》 3, 제62회, 42쪽.

31) 《수호지》 3, 제61회, 37~39쪽.

위기의 상황에서 명확해진다. 燕靑은 본디 盧俊義가 가장 좋아하던 노복으로 평상시에는 늘 그의 의견을 따라왔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盧俊義는 “허튼 소리 마라! 내 부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가족인 아내를 신뢰한다. 燕靑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옷자락을 붙잡고 말려보지만 오히려 盧俊義는 발길로 차 넘기고 성큼성큼 성안으로 들어간다.³²⁾

하지만 盧俊義의 末路는 현실 권력자들의 부패와 위선 앞에서 비참하기까지 하다. 方臘 토벌의 공을 세우고 조정으로 올라와 천자를 알현한 盧俊義는 수없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 말을 탈 수 없어 배로 귀향하게 된다.

천운이 다하여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날 밤 노준의는 뱃머리에 서서 소풍하다가 수은이 골수에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없는데다가 취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회하의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불쌍하게도 하복의 욕기린은 수중 원귀가 되고 말았다.³³⁾

《水滸傳》에서 盧俊義는 가지고 있던 재력에도 불구하고 “공을 받들고 법을 지키며(奉公守法) 개인의 사사로운 재물을 취한 바 없기에” 그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충의 가치를 정의하는 기본 요소로서의 無私함³⁴⁾은 양산박에서 盧俊義가 宋江에 이어 2인자에 위치했던 주요 명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水滸葉子》에서 盧俊義의 無私함은 그가 맞는 파국으로 인해 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 사악함임을 깨닫게 한다.³⁵⁾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품었던 뜻을 이룬” 盧俊義가 항주를 떠나 동경으로 향할 때에도 燕靑은 盧俊義를 찾아갔었다. 주인과 함께 “편벽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소문 없이 평생을 보내는 것”을 청하는 燕靑에게 盧俊義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32) 《수호지》 3, 제62회 45~46쪽.

33) 《수호지》 4, 제120회, 401쪽.

34) 《左傳》, “無私, 忠也”(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7,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414쪽).

35) 朴永鍾, <협객의 충의와 유가적 충의의 충돌에서 바라본 《水滸傳》의 비극성>, 《中國語文學論集》 第33號, 中國語文學硏究會, 2005.8, 359-378쪽.

양산박에 있다가 송조에 귀순한 후 형제들은 변방에서 몇 백 차례의 싸움을 겪으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 슬한 형제들이 죽었으나 다행히 한집식구인 너와 나는 이렇게 살아남아 이제 금의환향하여 처자에게 음덕을 입힐 때가 되었는데 너는 어이하야 그런 보람 없는 소리를 하느냐?³⁶⁾

宋 왕조에 귀순 후 치른 수백 차례의 전투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盧俊義가 생각한 보람, 즉 “금의환향”은 가족에게 입힐 음덕에 국한되어 있었다. “조정이 어찌 나를 버리겠는가?”라는 생각은 盧俊義의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4,50명에 달하는 北京 “제 1의 부호”인 盧俊義 역시 권력의 꾀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盧俊義 집안의 부는 宋代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지방 경제에 중용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뤄졌다. 법으로 금하고는 있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관리들의 부당한 투기에 고리대금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었으며 때로는 “인의롭지 못한 직업”으로 표현되기도 했다.³⁷⁾ 날로 높아지는 위상으로 폐쇄적인 제국의 엘리트 계층에 편입이 되기는 했으나, 상인들의 위상도 여전히 모호했다. 돈은 많지만 권세가 없던 盧俊義 역시 당시 사회 시스템의 중심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에 순응하여 검소하고 정직한 상인이 되려는 盧俊義의 노력은 관리들의 보호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었다.³⁸⁾ 하지만 결국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던 盧俊義의 재물도 양산박에 귀속되었을 뿐이다.

《水滸葉子》속 盧俊義는 이상에 대한 추구만이 현실 속 부패와 비리를 극복해줄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한다. 盧俊義의 최후는 양산박에 오르기 직전 노래의 내용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반성”하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水滸葉子》속 盧俊義의 시간은 박도를 꺼내 자루를 몽치 끝에 대고 단단하게 동여맨³⁹⁾ 다음 끝까지 저항하던, 바로 양산박에 오르기 직전에 멈춰있다.

36) 《수호지》 4, 제119회, 384~385쪽.

37) 이화승, 《중국의 고리대금업》, 서울: 책세상, 2000, 85~89쪽.

38) 제롬 케를루에강 지음, 이상해 옮김, 《명나라시대 중국인의 일상》, 서울: 북폴리오, 2005, 140쪽.

39) 《수호지》 3, 제61회, 33쪽.

그리고 陳洪綬가 盧俊義에게 부여한 값어치는 九文錢이다.

3. 天巧星 燕青

3.1 機智, 공감과 소통

험한 지세에 높은 해자는 넓고 물은 깊구나. 돌레엔 녹시 총총하고 사위엔 작살 뻑뻑하네. 웅장한 고루(高樓)엔 가지각색 깃발이 현란하고 평탄한 성벽 위엔 검극이 삼엄한데 전망은 무진(無盡)하고 거리는 변화하구나. 동원서원엔 풍악 소리 진동하고 점포마다 재물이 산더미 이루었네. 1천 맹장성곽 파수 지휘하고 백만 서민이 상류 도성에 사누나.⁴⁰⁾

河北 지역에서도 첫손으로 꼽히는 도성 북경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해 보인다.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盧俊義의 집에서 자란 燕靑은 북경 토박이다.

단사같이 붉은 입술, 칠혹처럼 검은 눈동자, 얼굴은 맑은 옥 같구나. 영민하고 용맹이 출중한데 하늘을 찌를 듯 한 장 한 뜻 있고 타고난 자질 또한 총명하다네. 늠름한 풍채는 양산의 호한들도 칭찬하리. 이주의 옛 곡조 넘길 제면 건드러진 목소리 간을 녹이누나. 풍악은 가지가지 정통하였고 풍월판에서도 첫손 꼽히니 가락 맞는 박판 소리 하늘가에 올라가고 요량(嘹亮)한 생황 소리 그윽한 정 자아 내네. 몽치를 번개같이 놀리고 권법과 발길질 능하니 4백 군주 모두 다 들쭉하누나. 사람을 선모하는 영웅호걸 그가 바로 낭자 연청이라네.⁴¹⁾

浪子라는 별칭은 대체로 구란와사에서 활약하던 다소 경박한 한량에게 붙여졌었다.⁴²⁾ 물론 《水滸傳》속 燕靑 역시 “불고 텅기는 악기도 잘 다루거니와 춤도 노래도 곧잘 하는”, 온갖 예능에 능한 인물이다. 하지만 燕靑의 재주는

40) 《수호지》 3, 제61회, 22쪽.

41) 《수호지》 3, 제61회, 28쪽.

42) 曲家源, <水滸>一百單八將綽號考釋(沈伯俊編, 上揭書, 514쪽).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며 소설 텍스트 속 갖가지 상황들에서 절묘하게 빛난다.

이튿날 송강은 전별연을 베풀었다. 연청은 몸에 새긴 지문이 드러나지 않게 수한 옷으로 잘 가렸는데 그 차림새를 보니 산동 도봇장수 복색이었다. 허리에는 땡땡이를 차고 어깨에는 황아 짐을 땀는데 그 차림새를 보자 좌중에는 웃음이 터졌다.

“자네 기왕 도봇장수 복색을 한 바에 우리들 앞에서 산동 도봇장수들이 부르는 노래나 한 곡자 뽑아 보게.”

송강이 청을 넣으니 연청은 곧 한 손으로 땡땡이를 흔들고 다른 손으로 박판을 두드리면서 도봇장수들이 부르는 태평가를 불렀는데 산동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신통히도 같은지라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렸다.⁴³⁾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발휘되는 燕靑의 기지는 타인의 공감을 불러온다. 탄탄한 몸매와 온 몸에 새겨진 눈부신 꽃 문신조차 빈틈없이 준비한 임원과외 씨름대회에서 燕靑의 승리를 이끄는 데,⁴⁴⁾ 황제와의 대면을 위해 도움을 줄 李師師의 환심을 얻는 데,⁴⁵⁾ 그리고 황제와의 대면에서 황제의 기쁨을 더하는 데⁴⁶⁾ 일조한다.

36 천강성의 맨 마지막 자리에 있던 燕靑은 실상 “충명하고 식견이 넓은데다가 처신이 밝으므로 서른다섯 천강성들 보다 못하지 않았다.”⁴⁷⁾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108 호한들 가운데 다른 인물들과 구별된 영웅 면모를 직접 서술한 것은 《水滸傳》에서 宋江, 吳用 그리고 燕靑뿐이다. 주인 盧俊義의 운명을 바

43) 《수호지》 3, 제74회, 232~233쪽.

44) 《수호지》 3, 제74회, 239쪽: “임원은 자문을 새긴 燕靑의 단단한 몸집을 보고 얼마간 겁에 질렸다. ...마치도 옥을 깎아 세운 기둥에 연한 비취들을 막은 듯한 자수를 보고 태수는 무척 기뻐 몰았다.”

45) 《수호지》 3, 제81회, 349쪽: “듣자 하니 오라버니 몸에 고운 꽃무늬를 새겼다면 좀 보여줄 수 없나요?...그가 하도 다랑귀를 뛰는 바람에 燕靑은 마지못해 옷을 벗었다. 그러자 李師師는 한량없이 기뻐하며 섬섬옥수로 그의 몸을 살살 어루만진다. ...燕靑은 李師師의 손에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 한 피를 생각해 냈다.”

46) 《수호지》 3, 제81회, 351쪽: “어머니 燕靑을 불러내니 燕靑은 방 안에 들어가 황제를 뵈게 되었다. 燕靑이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니 천자는 그의 인물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

47) 《수호지》 3, 제73회, 230쪽.

꾼 吳用의 奸計를 간파하는 燕靑의 통찰은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지혜였다. 《水滸葉子》에서의 상승 과정을 거친 燕靑이 《水滸後傳》 등과 같은 《水滸傳》 후속 작품들에서 보인 활약을 고려할 때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후대로 갈수록 높아진다.⁴⁸⁾

3.2 媒介, 시대 속 영웅

燕靑의 多藝는 “온갖 글자풀이에 못하는 것이 없고 각처의 사투리와 장사꾼들의 은어에도 막힘이 없는” 多才가 더해져 양산박의 호한들이 그들만의 세계로 떨어질 위기 상황마다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지역 사람으로 분장해 일의 진행을 수월하게 열어준 燕靑의 변신은 招安을 받기 위해 황제를 만나러 戴宗과 함께 들어간 동경에서도 예외 없이 발휘된다.

대중은 붓짐을 메고 우산을 들었으며 연청은 수화곤에 상자 둘을 꿰어 댔는데 그의 차림새를 보니 검은 적삼 입고 허리에 전대 띠고 무릎 아래로 행전을 치고 발에 여덟 날짜리 미투리를 신었다...며칠 만에 동경에 당도하자 곧장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수문계로 가니 문지기 군사가 앞을 막는다. 연청이 상자를 내려 놓고 시골 말투로 “어쨌다고 막는 거여?”...“보아하니 자네도 사리 불통한 사령 같지는 않은데 왜 제 사람 보고 이렇게 신척하나? 우리 둘은 어릴 적부터 개봉부에서 일을 해 오면서 이 문으로도 수만 번 드나들었다. 그런 사람보고 이렇게 닦달 하니 양산박 놈들이 드나드는 건 다 놓치고 말 것 아닌가!” 연청은 웃으면서 간직했던 가짜 공문을 꺼내어 문지기의 얼굴에 던졌다.⁴⁹⁾

양산박의 잠입에 대비한 삼엄한 경계에 불구하고 燕靑의 능수능란함은 결국 동경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그리고 다음 날 燕靑은 다시 차림새를 바꾼다. 이번에는 “무명 적삼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두건을 비뚜름히 쓰니 제법 젊은

48) 鄭曉東, <從燕靑形象之演變看《水滸傳》作者的矛盾心態>, 《重慶郵電學院學報: 社會科學版》, 2004.5, 264~267쪽.

49) 《수호지》 3, 제81회, 344쪽.

식객 같았다.” 宋江의 등롱 구경을 준비하기 위해 柴進과 함께 동경으로 들어가던 燕靑의 차림새에서 “俗態”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던 것과 또 다르다. 소설 텍스트 속 燕靑이 보이는 행동에서 주목할 것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융통성과 “위낙 눈치 빠른 사람”인지라 가능했던 시의 적절한 판단력이다.⁵⁰⁾ 이는 양산박 好漢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는데, 매사에 제멋대로인 李逵조차 유일하게 양산박에서 “두려워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된 인물이 바로 燕靑이다.⁵¹⁾ 李逵의 행동들에 “한참 생각”을 하며 “정의를 상할까 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내는 장면은 관계지향적인 燕靑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⁵²⁾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활약하는 모습 가운데 《水滸葉子》가 선택한 것은 招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매개자로서의 燕靑이다.

6척도 넘는 키에 나이는 스물너덧, 입가엔 세 가닥 가는 수염 드리웠네. 늘씬한 허리, 벌어진 어깨, 위를 짚은 목과(木瓜)속 두건을 쓰고 흰 깃으로 깃을 단 백의 적삼에 거미줄 무늬의 붉은 실띠 띠었구나. 발에는 반들반들한 누런색 가죽 신 신고 더수기엔 짐승 그린 한 쌍의 금목걸이 드리우고 목에는 향라 휘양 둘렀네. 허리에는 명인선(名人扇) 비스듬히 질러 있고 살쩍에는 사계화 꽂혔구나.⁵³⁾

《水滸葉子》 속 대부분의 인물 도상은 陳洪綬의 의도에 따라 선택된 형상들이다.⁵⁴⁾ 그런데 《水滸葉子》의 다른 도상들과 달리 燕靑의 형상이 소설 텍스트와 갖는 관계는 밀접하다. 燕靑의 靑春 즉 젊음을 상징하는 살쩍에 꽂힌 꽃도 그렇지만,⁵⁵⁾ 무엇보다 葉子가 담아낸 서사가 바로 그림 속 인물이 燕靑임을 알 수 있는 招安과 관련된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師師는 남다른 분위기의 자태에 “얼굴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해당화 같고

50) 《수호지》 3, 제72회, 200~201쪽.

51) 《수호지》 3, 제73회, 233쪽.

52) 《수호지》 3, 제74회, 236쪽.

53) 《수호지》 3, 제61회, 27쪽.

54) 문정진, <육망, 기괴함, 그리고 “氣韻生動”-陳洪綬와 《水滸葉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63輯, 中國語文研究會, 2014, 96~102쪽.

55) 邱雅巨, <<楊升庵簪畫圖>在陳洪綬簪花人物畫中的定位>(盧輔聖 主編, 《陳洪綬研究》,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08, 44~49쪽).



그림3. 天巧星 浪子
 [燕靑] “子何不去, 惜主不慮”

허리는 동풍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으니, 그야말로 양원의 선녀요 월궁의 상아보다 더 아름다워” 황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기녀이다.⁵⁶⁾ 그런데 당대 최고의 기녀 李師師조차도 잘난 인물과 청산유수와도 같은 언변을 지닌 燕靑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린다. 燕靑이 李師師의 마음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철석간장을 가진 호남아” 燕靑에게는 눈앞에 놓인 大事가 우선이었다.⁵⁷⁾ 그리고 마침내 燕靑은 초안의 뜻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 李師師는 燕靑에게 통소를 불게 하여 성상의 주홍을 돋우게 한 다음 또 자신이 직접 월금을 타고 이어 燕靑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다음은 燕靑이 천자의 명을 받고 한 곡조 더 부르게 된 <減字木蘭花>의 내용이다.

듣조시오 듣조시오! 애원을랑 듣조시오. 떠도는 이 몸을 알아줄 이 있으리오,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늘이 무심하니 죄지은 자 무사하고 무고한 자 죄인 되네.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만 주면 가슴속에 충효 있어 언제든 그 은덕 보답하리!⁵⁸⁾

宋江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연이 燕靑의 心曲을 통해 황제에게까지 전달된 순간이었다. 葉子 속 燕靑의 손에 들린 통소의 봉황 장식은 초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에 상서로운 기운을 더한다.

송강 등은 기에다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는 글자를 크게 쓰고 대청도

56) 《수호지》 3, 제81회, 345쪽.

57) 《수호지》 3, 제81회, 349쪽: “燕靑은 일어나서 금산이 기울듯 옥기둥이 넘어지듯 큰절을 여덟 번이나 하였다. 그가 이렇게 큰절을 한 것은 여인의 음란한 마음을 눌러서 대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에 그가 아니고 주색에 빠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사를 망쳤을 것이다.”

58) 《수호지》 3, 제81회, 352쪽.

‘충의’라고 부르웁니다. 그들은 주, 부를 치거나 양민을 해치는 일이 없이 오로지 탐관오리들과 간특한 무리들만 죽이고 그저 하루 속히 초무를 받아 나라를 위해 진력하기만을 바라고 있나이다.⁵⁹⁾

천자를 위한 “노래는 끝났으나 방 안에는 찌꼬리 우는 소리 들리는 듯 맑은 여운이 그대로 흐른다.” 燕靑의 이름 靑 글자에까지 이어져 있는 끊어질 듯 이어진 선은 그림을 감상하는 이에게 당시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장치이다.

3.3 忠孝, 관계와 믿음

《說文解字》에서 忠은 공경한다는 의미로 정의된다.⁶⁰⁾ 타인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忠’이다.⁶¹⁾ 그런데 燕靑이 盧俊義에게 보이는 忠은 노복의 주인에 대한 충실함 그 이상이다. 특히 燕靑의 忠은 《水滸傳》에서 은인 盧俊義의 아내와 私通 후 배신한 李固와 대비된다.⁶²⁾ 李固 역시 “아는 사람을 찾아 북경에 왔다가 찾지 못하고 동태가 되어” 쓰러진 것을 盧俊義가 살려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李固는 “부지런하고 글도 알고 셈도 밝은지라” 수하에 4,50명의 집사들을 거느리며 집안일을 도맡는 막중한 책임까지 지고 있었다.

燕靑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諫言을 물리치고 양산박에서 한참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 온 盧俊義는 마을 어귀에서 “헤진 두건을 쓰고 남루한 옷을 걸친” 燕靑을 만난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느냐?”

노준의는 그를 담장 옆으로 데리고 가서 연고를 캐어물었다.

59) 《수호지》 3, 제81회, 354쪽.

60) “忠, 敬也.”(《說文解字》)

<http://www.zdic.net/z/19/sw/5FE0.htm> (검색일: 2017.11.9)

61) 宋司馬光, <四言銘系述>: “盡心於人曰忠, 不欺於己曰信”(羅竹風, 主編, 上揭書, 414쪽).

62) 《수호지》 3, 제61회, 27쪽.

“주인님께서 떠나신 지 반달도 못 되어 이고가 돌아와 아씨께 ‘주인님은 양산박 宋江한테 귀순하고 들췌 자리에 앉았습니다’고 알리고 즉시 관청으로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이고는 아씨하고 죽자 살자 하면서 이 연청이 해살을 부린다고 옷까지 죄다 빼앗고는 쫓아냈습니다. 그저 그쯤 해도 모르겠는데 그자는 또 일가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청을 들여놓는 날이면 절반 가산을 내서라도 관청놀음을 하겠다고 올리메는 바람에 아무도 저를 들여놓지 않습니다. 저는 성안에는 몸 들 곳이 없게 되어 성 밖으로 나와 걸식하면서 밤이면 암자에서 잡니다. 이렇게 되니 양산박에 가 주인님을 뵈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였으나 함부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정말 양산박에서 오시는 길이라면 제가 여쭙 말씀을 믿으시고 양산박으로 올라가 달리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안으로 들어가신다면 꼭 그들의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⁶³⁾

燕靑의 충심을 의심한 盧俊義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곤경에 빠진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되던 중 극심한 고초를 겪으며 암살당할 위험에 빠진 盧俊義의 생명을 구한 이 역시 燕靑이었다. 처참한 盧俊義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운” 燕靑은 “장독이 나고 밭 가죽이 다 터져서 한 걸음도 옮겨 놓기 어려운” 9척 거구의 盧俊義를 업고 산길을 내려온다.⁶⁴⁾

燕靑의 행동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자식의 실천 규범과 일치한다. 젊은이가 노인을 업고 있는 형상의 글자 ‘孝’는 유가적 윤리사상을 토대로 가정 관계를 유지하는 도덕이었다. 그리고 孝의 근본 취지는 점차 군주에 대한 충성(忠君)으로 이어졌다.⁶⁵⁾ 《水滸葉子》 속 燕靑의



그림4. 《水滸傳》 第62回, “放冷箭燕靑救主”

63) 《수호지》 3, 제62회, 45쪽.

64) 《수호지》 3, 제62회, 57쪽.

65) 조정래, <中國 《二十四孝》와 《三綱行實圖》에 나타난 孝 관련 도상 서사 연구>, 《中國文化研究》 第28輯, 中國文化研究學會, 2015.5, 1~13쪽.

忠 또한 招安을 성공으로 이끈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기녀 李師師와의 일화에
서 공적 관계로 확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水滸傳》 속 燕靑의 忠에서 국가적 관계에서 발현되는 이데올로
기로서의 忠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燕靑의 보람⁶⁶⁾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당면한 현실 세계와 공감하며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
해 믿음을 형성해간 그 과정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燕靑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애써 이루려는 공명”이 오래가지 못함을 역사적 경험으로 인
지하고 있었다.⁶⁷⁾ 이로 인해 진퇴존망의 시기 또한 잘 알고 있던 燕靑은 盧俊
義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義를 중히 여기는 宋江이 놓아주지 않을 것을
간파하고 쪽지로 인사를 대신한 후 미련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⁶⁸⁾
“부귀영화 마다하는” 燕靑의 의지는 그의 별명 ‘浪子’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론 陳洪綬는 葉子 속에 招安에 결정적인 매개자 역할을 한 燕靑의 형상
(圖)을 재현함으로써 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⁶⁹⁾ 하지만 동시에 葉
子 속 글귀(文)에서 토사구팽 당하는 功臣(주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안타까
움을 드러낸다. 또한 燕靑의 圖와 文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는 忠, 義, 孝 등
의 가치들이 지닌 시대적 간극을 엿보게 한다.

66) 《수호지》 4, 제119회, 385쪽: “주인님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길은 보
람이 있어도 주인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보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67) 李卓吾는 燕靑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높은 평가(容眉: 高人)를 내림과 동시에 자신의 無私
함을 근거로 燕靑의 제안을 거절하는 盧俊義에게는 어리석다고 말한다. 《匯評忠義水滸
傳》 第119回(100回本 第99回).

68) 《수호지》 4, 제119회, 384~386쪽.

69) 《水滸後傳》에서 차지하는 燕靑의 비중은 주목할 만한데, 작품 속 燕靑의 입을 빌어 작가
陳枕은 이념화된 忠에 대한 생각을 펼친다. 孫琳, 《水滸傳續作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2014, 69~70쪽.

4. 나오는 말

《水滸葉子》 속 인물들의 그림과 글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盧俊義와 燕靑은 주인과 노복이라는 표면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출생 신분, 삶의 태도, 행동 방식,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특징을 지녔다. 하지만 사시사철 밤하늘에서 길을 인도하던 북두칠성이 지닌 영원과 순환의 상징성은 盧俊義가 운명론의 술수에 넘어간 순간, 사라져 버린다. 게다가 경전 밖 현실은 더 이상 당당한 외모와 귀한 인상, 부귀한 가문의 영예, 탄복할 만큼 출중한 무예, 고급지사에게 대한 정통함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반면 넓은 식견을 지닌 燕靑의 탁월한 소통 능력은 갖가지 상황들 마다 절묘하게 빛난다. 또한 시의 적절하게 발휘되는 燕靑의 기지는 타인의 공감을 불러오는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며, 결정적인 순간 발휘되는 판단력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했다. 《水滸葉子》 속 盧俊義와 燕靑이 부여받은 순위는 當代 영웅에 대한 인식 및 변화된 사회 속 지도자에 대한 시대적 관점을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葉子 속 그림과 글 ‘사이’에서 독자들은 전통적 가치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한다.

< 參考文獻 >

- 沈伯俊 編, 《水滸研究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4.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2·7,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陶菴夢憶(續修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陳洪綬(明)繪, 徐蜀 編, 《陳章侯水滸葉子》,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 鄭振鐸, 《中國古代木刻畫史略》,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6.
- 陳美東, 《中國古代天文學思想》,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7.
- 徐小蠻·王福康 著, 《中國古代插圖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盧輔聖 主編, 《陳洪綬研究》,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08.
- 孫琳, 《水滸傳續作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 야부우치 기요시 지음, 전상운 옮김, 《중국의 과학문명》, 서울: 민음사, 1997.
- 조셉 니담 저, 콜린 로넌 축약, 김영식·김제란 옮김, 《中國의 科學과 文明: 사상적 배경》, 서울: 까치글방, 1998.
- 이화승, 《중국의 고리대금업》, 서울: 책세상, 2000.
- 제롬 케를루에강, 이상해 옮김, 《명나라시대 중국인의 일상》 서울: 북폴리오, 2005.
- 티모시 브룩, 이정·강인환 옮김, 《쾌락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서울: 이산, 2010.
- 조너던 D.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 《룽산으로의 귀환》, 이산, 2010.
-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사기·서》, 서울: 민음사, 2011.
- 류짜이푸 지음, 임태홍·한순자 옮김, 《쌍전: 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 파주: 글항아리, 2012.
- 이택용, 《중국 고대의 운명론: 삶의 유연성에 대한 대응》,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4.
- 사내암 저,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조 역, 《수호지》1-4, 서울: 사단법인 올재, 2014.
- 사마천 지음, 김영수 옮김, 《완역 史記·世家》, 서울: 알마, 2014.
- 李霖燦, 장인용 옮김, 《중국미술사》, 서울: 다빈치, 2017.
- 鄭曉東, <從燕青形象之演變看《水滸傳》作者的矛盾心態>, 《重慶郵電學院學報: 社會科學版》, 2004.5.
- 吳萍, 《《水滸傳》圖像傳播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劉榕峻, 《陳洪綬《水滸葉子》研究》, 國立臺灣大學文學院藝術史研究所碩士學位論文, 2009.
- 汶振鑫, <從《水滸葉子》看陳洪綬人物畫藝術的淵源>, 《美與時代》, 河南美學學會和鄭大美學研究所, 2011.8.
- 喬光輝, <陳洪綬《水滸葉子》與文本增殖>, 《南京藝術學院學報: 美術與設計版》5期, 南京藝術學院, 2012.8.
- 殷青華, <陳洪綬《水滸葉子》藝術特色探微>, 《藝術時尚旬刊》, 江蘇省文學藝術界聯合會, 2013.6.

- 申智瑛, <元雜劇 水滸戲와 小説 《水滸傳》 비교 연구>, 《中國文學》 第30輯, 韓國中國語文學會, 1998.10.
- 朴永鍾, <협객의 충의와 유가적 충의의 충돌에서 바라본 《水滸傳》의 비극성>, 《中國語文學論集》 第33號, 中國語文學硏究會, 2005.8.
- 서성·강현실, <《水滸傳》 插畫의 유형과 계보 연구>, 《中國學論叢》 第35輯, 高麗大學校 中國學硏究所, 2012.2.
- 문정진, <육망, 기괴함, 그리고 “氣韻生動”-陳洪綬와 《水滸葉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63輯, 中國語文硏究會, 2014.6.
- 서성·강현실, <경쟁하는 삽화와 비평의 형식 -《水滸傳》 대척어인 서문본의 용여당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64輯, 中國語文硏究會, 2014.8.
- 김수현, <명칭 서적 삽화 연구의 의미와 과제>, 《中國語文論叢》 第64輯, 中國語文硏究會, 2014.8.
- 조정래, <中國 《二十四孝》와 《三綱行實圖》에 나타난 孝 관련 도상 서사 연구>, 《中國文化硏究》 第28輯, 中國文化硏究學會, 2015.5.
- 문정진·오경희, <《水滸葉子》의 인물 서사 試探>, 《中國語文論叢》 第72輯, 中國語文硏究會, 2015.12.
- “忠”, 漢典, <http://www.zdic.net/z/19/sw/5FE0.htm> (검색일, 2017.11.9.)
- “北斗七星”,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7.11.9.)
- 《水滸葉子》, “中國水滸”, 中國(東平)水滸文化傳播中心, <http://www.sddp.net/sh/> (검색일, 2017.11.9.)
- 《匯評忠義水滸傳》, <http://www.saohua.com/shuku/huipingshz> (검색일, 2017.11.9.)

< Abstract >

A Study on Personalities of the Story of Water Margin
— Around Lu Junyi and Yan Qing

www.kci.go.kr Moon, Jeong-jin

When illustrations and stories about the characters in Shuihuyezhi interact

one another, they create new meanings. For example, Lu Junyi and Yan Qing, the main subjects in this study, have opposite characteristics not only in their apparent positions (i.e. Lu Junyi is a master, and Yan Qing is an old servant.), but also in social origin, attitude to life, and value. And eternity and circulation, the symbols of the Big Dipper, which always guide ways at night, disappeared as soon as Lu Junyi was deceived by a quirk of fate. Moreover, the reality at the time did not want good looks, luxurious image, honors of wealthy family, outstanding martial arts, or a wide knowledge about the scriptures any more. On the other hand, with his broad insight, Yan Qing had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that worked in various situations. Also, his timely wits teach us what wisdom is and his right judgements in critical moments made Yan Qing an brilliant mediator. Such positions of Lu Junyi and Yan Qing in *Shuihuyezhi* reflect the awareness and viewpoint of the public about current heroes and leaders in the new society. And readers will have a chance to re-consider their conventional values 'between' the illustrations and writings on playing cards.

Key words: *Shuihuyezhi*(Water Margin cards), narrative, leader, relationship, wisdo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3.	2017. 11. 28.	2017. 12. 05.	2017. 12. 13.	2017. 12. 31.